즉시 배포용: 2020년 1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농민을 위한 세금 혜택이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 포함된다고 발표

농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5%에서 15%로 세 배 늘려

농장 운영이 주요 수입원인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 투자 세액 공제 혜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 농민 및 자영업자에 대한 현재 소득 공제 확대 및 투자 세액 공제의 환급 가능성 확대가 포함되어 더 많은 농업 기업이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여전히 뉴욕의 핵심 산업이며 우리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농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 동력이며, 이러한 주요 개혁과 함께, 모두를 위한 더 강한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예산은 기존 자영업자 및 농장 사업 소득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공제를 5%에서 15%로 세 배 늘립니다. 이는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이고 개인 소득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예산은 또한 현재 새로운 기업에만 제공되는 투자 세액 공제의 환급 가능성을 확장하여 기본 소득원이 농업 운영인 모든 납세자가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제공된 공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세금 혜택을 바탕으로 예산은 지역 지원 기금을 통해 농업을 상당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2,740만 달러의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금은 농업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 기술 지원, 연구, 농업 교육, 인력 개발 및 마케팅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뉴욕 미래의 미국 농부(Future Farmers of America, FFA), 프로-데어리(Pro-Dairy), 코넬의 상품별 연구 및 개발, 농장에서 학교까지 프로그램(Farm-to-School program)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부 예산은 연방 아동 영양 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s)을 통해 아침과 점심 식사로 지역 음식을 조달하는 교육구의 지출 한계치를 인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학교는 학생 기아 근절(No Student Goes Hungry)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역 농장에서 메뉴 항목의 30%를 공급한다는 주지사의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